

# 사랑사랑

제83호 (2001/11/20)

\*\*\*\*\*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대표전화: 02-741-5363, 팩스: 741-5364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mailto:rights@chollian.net)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편집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총무)



## “집회금지구역에 집결한 1인시위대”

각기 다른 요구를 내건 40여명의 1인 시위자들이 온두라스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국세청건물 앞에 모였다 - 사진: <시민의 신문> 권우성 기자

## [후원자와의 만남]

### 젊은 도전, 고려대 생활도서관 1)을 찾아

허유지수(꿈꾸는 사람들 회원)

11월, 고려대 생활자치도서관(이하 생도)의 관장님과 운영위원들을 만났다. 학관 오른편에 위치한 생도는 30평 정도의 규모로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는 예쁜 가을 오후, 00, 01학번 친구들은 생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당당하고 생기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생도는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의 힘으로 설립되었다. 취직공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 중앙도서관과 부실한 장서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선배들이 책을 수집하고 모금운동을 한 결과, 90년대에 들어 생도는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정식운영위원으로 00학번 5명, 수습운영위원으로 01학번 9명이 참여하고 총학생회가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 학문 사상의 자유 쟁취, 진보적 사상의 대중화(생도의 모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 그 고민들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관장 홍태경(인문학부 00학번)님은 생도가 갖는 의미를 하나씩 이야기했다.

“대표 입장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공간은 비록 고려대 안에 있지만, 대학 도서관으로서 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도서관 운동의 여지가 남아있고, 개발 가능성이 생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학생증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책 한 권만 기증하거나 혹은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낸다면 대출증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렇게 대학 도서관을 많은 이들에게 개방해서 인문사회학을 발전시키고,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생도가 장백서원<sup>2)</sup>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장백. 그게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듯이, 생도가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강연회, 새내기 기획 도서전, 영화제 등의 활동에 비중을 두어 현실 속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요.”

수습운영위원 권기면 님(정경학부 01학번)의 말에 관장님이 설명을 덧붙인다.

“강연회는 가장 쉽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적은 기회를 보충할 수 있지요. 주제를 설정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학생사회에 우리가 던지고 싶은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모자를 꼭 눌러쓴 수습운영위원 이보영 님(정경학부 01학번)은 짧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학교 안에 언론출판협의회라고 있어요. 언론 형태의 기구인데, 고대 신문, 고려교육방송

1)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사랑방을 후원하는 곳이다. 그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다.

2) 고려대 앞의 대표적 사회과학 서점

국, 고대문화와 석순 같은 교지, 영자신문사 등, 그리고 생도가 들어가거든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도서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차별화시키는 기구로 생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 4.30 메이데이 영화제, 관람객은 두 명..

〈맥도날드 망신당하다〉와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실직노숙자〉를 든 영화제에 일반 관람객은 단 두 명. 영화제 이후, 단지 홍보 부족이 아닌,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들진 않았는지,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생도 식구들에게 물었다.

“대학사회 내 운동의 필요성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사회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8,90년대 운동형태의 답은 안되고,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보라든지 강연회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중심에, 2000년대의 운동에 생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구요. (권기면)”

“상당부분은 동의하지만 관심이 없어졌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한 생각들은 아직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요. 사람들의 관심과 참가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싶어요. 이 안에서 바뀌 나가겠다, 이 길로 가겠다, 그러니 따라오라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좀더 의심하고 생각해보자 하는 문제제기. 해결방식의 제시가 아닌, 고민을 해나가는 장소가 생도였으면 해요. 그 수준만 된다면 만족해요. (홍태경)”

#### 사랑방에게.. 그리고 마지막 말

“인권하루소식 잘 받아보고 있거든요. 정리하기 전에 읽어보고 한답니다(생도에는 인권하루소식이 노란 파일에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그 속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 안에서 많은 공부를 해요. 하루소식 계속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운동권틱한 말투로 하시면 (웃음), 앞으로 가열찬 투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홍태경)”

“생도 안에서 어학공부 등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이용자 분들이 여전히 공부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거나 중앙도서관과의 차이점을 두지 않는 것이 아쉬워요. 고쳐 나가야 할 점이지요. (이보영)”

“앞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권기면)”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면서 돌아보니 안쪽 벽면 게시판에 쌀시장에 관한 자보가 붙여져 있었다. 생산비도 안나오는 수매가격과 농민들의 자살로 이어지는 지금의 깊은 시름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활동을 촉구하고 있었다. 생도의 이야기들이 단지 종이 몇 페이지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으로, 젊은 외침으로 뛰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기분 좋은 자보였다.

ps. 이보영 님의 감쪽한 부탁으로 광고를 말씀드립니다아!

11월 28일 오마이뉴스 기자인 오연호님과 제 2학관 소극장에서 대안언론으로서의 인터넷 신문에 대한 강연회를 갖구요, 12월 3일에는 ‘비평과 전망’ 이명원님과 우리나라 비평에 대한 비평을 해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

## 신자유주의 교육과 교육불평등

정리 :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때: 11월 17일(토)

최근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성과급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11월 월례포럼은 전교조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교육 반대'라는 구호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최근 교육의 장이 어떤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자로는 '교육과 불평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송경원 님(진보교육연구소 회원,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을 모셨습니다.

###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비자로서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급자(학교) 사이에 선택받기 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시장화 이면에는 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의 축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학교에게는 '특성화'(차별화)를,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능력대로 알아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 "교육은 경제다?"

송경원 님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본질을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교육의 시장화'를 목표로 삼는 신자유주의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는 성적우수자(높은 소비능력을 갖춘 아이들)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 하에서도 잘사는 집 아이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관리직과 전문직 등 소위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가정 출신이 무려 52.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우리사회의 전체 직업분포를 보면 관리직과 전문직은 18.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잘 살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집 아이들이 일류대에 입학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교육 부문에서도 이미 교육수준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잘 사는 집 아이들과 못사는 집 아이들의 학력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역시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실상부한 '한국형 귀족학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안착되면, 잘사는 집 아이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일류대에 입학하고, 그리

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결국 계급재생산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국가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립학교에서 질 낮은 교육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결국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잘 하는 아이에게만 관심을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차이에 기반한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동원하고 있는 '다양성과 선택'이라는 수사(修辭)가 높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획일성에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 가져올 결과는 다양성과 선택과 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잘사는 집에서 태어나 성적도 우수한 소수의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교육 선택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는 그 아이와 학부모가 가진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부모의 학력과 언어능력, 가정의 문화수준 등)의 힘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집 아이들이야 좋은 사립학교나 특성화 학교에 입학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재정부족으로 허덕이는 공립학교에서 제한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나머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교육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

지금까지는 교육을 통한 성취가 어느 정도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평등화의 기제이며 공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이러한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장의 논리, 경제논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송경원님은 '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시장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교육재정 확충 △대학 서열화 철폐 △교육주체의 권리 보장 △교육과정의 민주적 편성과 운영 등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우산 아래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금 교육의 불평등 심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권운동도 교육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투쟁에 우리가 연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례포럼 자료는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보/고

(2001년 10월 넷째 주 - 11월 셋째 주)

## 인권교육실

### ● 교칙분석 보고서 발표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교칙 분석 보고서'가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교육실에서는 교칙분석 보고서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육관련 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에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칙분석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권리 실태를 좀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 ● 함께 해요! 청소년노동 실태조사

겨울방학 기간동안 청소년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무척 어려운 사안입니다. 조사활동에 관심 있는 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주변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목격했거나 관련 종사자를 알고 계신 분은 인권교육실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 교사와 함께 '청소년인권' 워크숍

겨울방학 중에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한 교사 워크숍을 열 계획입니다. 인권교육 일반에 관한 워크숍을 두 차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 ● 인권교육연구모임에 초대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사랑방에서 열리는 '인권교육연구모임'은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

약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아동인권 현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경희대 인권강좌 맡기로

경희대학교에서 2002년 1학기 교양강좌 '현대사회와 인권'을 담당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인권교육실에서는 이 강좌를 맡음으로써 대학생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연구·제시하고, 풍부한 읽을 거리를 엮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강의를 수락했습니다.

## 인권정보자료실

### ● 2001년 국감자료 제공합니다

2001년 국정감사 자료목록을 11월 15일부터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자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자료입니다. 올해 자료 중에는 지난해에 없던 국방위원회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부쩍 관심을 끌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수치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교정시설 실태 등에 관한 자료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임위별, 혹은 주제별로 자료가 필요한 분은 이메일(angelica-choi@hanmail.net)이나 전화(02-741-5363)로 신청해 주세요.



### ● 언론, 이적 표현물 자료 취재경쟁

지난 6월 <사람사랑>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는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기사화되자,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적들이 이적 표현물 명단에 버젓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중과 지식인(지은이 한완상)'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조영래)'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참된 시작(박노해)' 등 시민들이 한두 권쯤은 읽었거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아직도 이적표현물의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학문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여전히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은 72년부터 95년까지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1,220종의 단행본, 판플렛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교도소 내 반입 및 구독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유권위원회

### ● 집시법 개정투쟁 전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소속단체로서 사랑방은 지난 한 달간 집시법 개정을 위한 각종 행동에 적극 결합했습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직접행동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대사관 앞에서의 동시다발 1인시위, 집회 방해 목적의 위장집회 규탄 시위, 대사관 앞 1인시위 집결투쟁 등을 전개했습니다.

위장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대학로에서 사흘간 모니터 활동도 진행했는데, 여기엔 황수용, 신성호 님 등 후원자 분들이 모니터

를 자원해 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11월 9일엔 '연석회의'의 정책팀이 직접 마련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 ● 인터넷검열반대! 명동성당 단식 참여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6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농성에 사랑방도 참여해, 11월 7일 이창조(자유권위원회 소속)씨가 1일 철야단식을 진행했고, 사무국의 나머지 활동가들이 농성과 홍보활동에 결합했습니다.

### ● 양심적 병역거부권 운동방향 모색

올해는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화두로 등장한 해였습니다. 올 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사랑방과 다른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11월 10일 간소한 엠티를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쟁취'를 위한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초까지 공동기구를 발족시키고 그 기구를 통해 대국민홍보를 비롯한 활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도 가능한 활동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7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회' 단식농성

##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테러'에 편승한 국정원의 책동

인권하루소식 기자 '범용'이

A4 2쪽 분량의 인권하루소식이지만 '기사 선정이나 지면 구성에 있어서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나 후원자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까? 사실 신문읽기를 어려워하는 나는 인권하루소식 기자가 되기 전까지 그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안다손 치더라도 지난한 신문읽기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축적인 인권하루소식 기사 쓰거나 지면 구성에 녹아있는 함의를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궁금했다. <다시 보는 인권하루소식>은 한정적인 분량과 지면 구성 때문에 미처 못했던 이야기와 저간의 사정을 소개하고, 하루소식팀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와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하루소식 기사 중 주목해 봤으면 하는 기사는 '테러방지법' 관련 기사. 테러방지법 관련 기사는 11월 15일자부터 17일자(논평)까지 사흘 연속 비중 있게 다뤄졌다. 사실 A4 2쪽 분량의 인권하루소식에서 3일 연속으로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한 '투자'이며, 특히 논평 주제로까지 선정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큰 비중을 뒀다는 의미다.

그런데 인권하루소식팀이 테러방지법 기사를 다루게 된 것은 아주 우연찮은 '발견' 때문이었다.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여느 날처럼 기사꺼리를 찾느라 분주했다. 그러던 중, 연합뉴스 사회란에 올라있던 '국정원 테러 수사권'이란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국정원이 12일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테러사건 이후, '테러'를 빙자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고, 다른 곳도 아닌 '국정원'이란 곳에서 일을 꾸민다는 사실이 미심쩍었다.

하지만 연합뉴스 기사내용만을 가지고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일단 편집회의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기사화 여부에 관계없이 상황을 추적해 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소임은 내게 맡겨졌고, 나는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을 내려받아 몇몇 변호사 및 교수에게 검토를 의뢰했다. 하지만 워낙 급한 부탁이었기에 그날 중으로 충분한 검토의견을 듣지는 못했고, 다만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의 견해만 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권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테러방지법의 심각성을 점차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권 변호사는 무엇보다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국정원에 의한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테러단체 구성 가입죄, 불교 지죄, 참고인 구인, 구속기간 연장 등은 국가보안법의 명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이어 국정원 관계자를 전화 취재한 이후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더 크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12월 8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권 변호사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기사는 14일자 인권하루소식의 머릿기사로 올려지게 된다.

다음날이 되자, 보다 치밀한 검토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배재대학교 김종서 교수,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는 A4 2쪽 분량으로 검토의견을 보내왔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원장 박영립 변호사와 각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해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내부적으로도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단지 하루소식 기사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서둘러 긴급토론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짧게는 99년 집시법 개악 당시 사회단체들이 법안통과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던 일이 떠올랐고, 길게는 국가보안법 50년의 역사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인권하루소식은 연이어 테러방지법 기사를 머리에 올렸고, 17일자에선 논평을 통해 테러방지법 입법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금 우리는 국정원과의 한판 싸움을 준비중이다. 국정원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시민사회의 대응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지만, 정권 말기로 치달으면서 각종 인권 및 개혁과제들이 후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일단 11월 20일로 예정된 긴급토론회와 향후 대책회의가 지나봐야 시민사회의 대응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사안을 따라갈 계획이다.

### 인권하루소식의 하단 띠광고

한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을 외치며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인데, 사안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고, 아직 피해사례가 충분히 드러난 것은 아니어서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17일자 머릿기사에서 소개됐듯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라'는 선택을 강요했으며, 정통윤의 '협박'에 못 이긴 엑스존이 스스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오늘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1인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매일 하단 띠광고를 통해 이들의 투쟁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비록 작은 띠광고지만, 인권하루소식 분량에 비춰보면 상당한 비중을 둔 결정이었다. '띠광고' 하나 역시, 인권하루소식의 '의지'와 '연대'의 표시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 『인권하루소식』 제2000호 기념식과

사랑방 송년의 밤'이

사랑방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념식: 2001년 12월 18일 오후 7시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서울부평

송년회: 같은날 같은곳에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자세한 내용은 [www.sarangbang.or.kr](http://www.sarangbang.or.kr)을 참고하세요..

# 사/랑/방/소/식

(2001년 10월 넷째 주 - 11월 셋째 주)

## ■ 사랑방, 대표·사무국장직 폐지

지난 8월 27일 서준식 전 대표가 사임한 후 사랑방은 대표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은 장시간 토론을 통해 대표와 사무국장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단체의 얼굴이 되며, 인권 활동보다는 이런 저런 관리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실현 과정이 어렵더라도 '활동가 전원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업단위를 묶어서 팀제로 운영하고, 팀 단위의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팀의 사업을 조정하고 사랑방 정책의 내·외적 통일성을 유지할 조정 역할을 하는 1인을 2년 임기제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역할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와 어떤 권한을 줄 지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에 조직 논의를 마무리지어 2002년에는 새로운 체제로 힘찬 출발을 할 것입니다.

## ■ 사랑방 '성폭력 내규' 마련

사랑방 활동가들은 일상에서 성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폭력 내규를 정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외부에서 활동가를 초청하여 강연도 들었고, 내규 준비팀을 중심으로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11월 19일에 성폭력 내규를 확정합니다.

## ■ 울산영화제 사태 조사 발표

울산영화제에서 벌어진 '밥꽃양 사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밥꽃양 사전 검열 논란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견해"라는 제목으

로 지난 11월 9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두 차례 울산에 다녀왔고 장시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랑방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가상대 손해소송 승소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2시간 동안 노상감금을 당했던 사랑방 활동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는 소식을 지난 5월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측이 당연히 항소하리라 예상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 왔는데, 경찰측이 항소 시한을 넘긴 탓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현재 배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쓰신 이상희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배상금 전액은 인권활동에 쓰여질 것입니다.

## ■ <인권하루소식> 2천호 발간 눈앞에

12월 18일은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2천호를 맞는 날입니다. 이 시기는 김대중 정권 4년을 맞아 인권정책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12월을 제대로 맞기 위한 준비에 모두들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1천호 기념식 날, 서준식 전 대표이자 발행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천호 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은 12월 18일 저녁 '인권하루소식' 지령 2천호 기념식 및 사랑방 송년의 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루소식과 사랑방을 사랑해주셨던 후원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2001년 10월 회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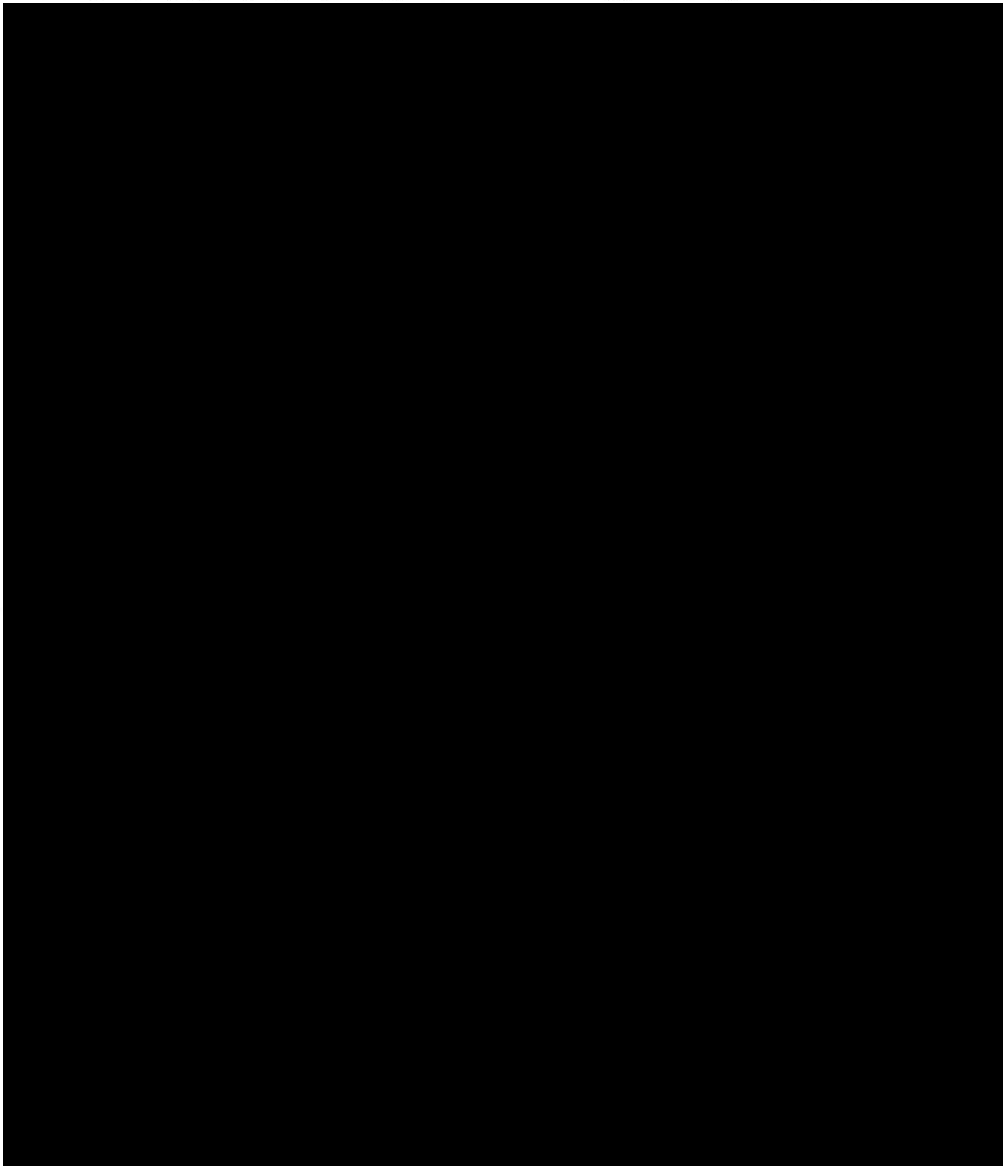
(2001년 10월 17일 - 11월 16일)

이월금 : 38,081원	
수입	지출
<b>사업수익</b> 2,518,790원 -하루소식 1,997,020원 구독료(118명) 1,772,900 기사배급 122,850 라디오방송 101,270 -간행물 판매 46,000원 인간답게살 권리 1권 하루소식 합본호 3권 시민이 재판을 1권 불심검문자료집 1권 -자료제공비 200,770원 -강연료 275,000원  <b>정기후원금</b> 4,901,620원  <b>상임활동가 기여금</b> 520,000원 <b>차입금</b> 375,000원 <b>은행이자 및 기타</b> 10,420원	<b>사업비</b> 963,330원 -하루소식 우편발송 178,540원 -자료구입 및 제본 88,400원 -월례포럼 100,000원 -감옥인권팀 124,720원 -사회권·자유권위 25,900원 -인권교육실 27,180원 -연대사업 70,000원 -사람사랑 제작발송 152,990원 -출장비 195,600원  <b>활동비</b> 3,500,000원 <b>사무실유지비</b> 893,500원 <b>통신비</b> 876,780원 <b>사무비품</b> 64,000원 <b>팩스/프린트 구입</b> 1,300,000원 <b>사무국 식비</b> 305,060원 <b>생활비</b> 79,000원 <b>기타</b> 320,000원 -성폭력 내부교육 100,000원 -경조사비 30,000원 -도난 및 열쇠교체 190,000원
<b>총수입:</b> 8,325,830원	<b>총지출:</b> 8,361,670원
<b>잔액:</b>	<b>2,241원</b>
<b>부채:</b>	<b>3,275,000원</b>

### ● 특별사업기금 사용내역

- 이월 : 3,493,480원
- 지출 : 500,000원('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잔액 : 2,993,480원

<10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11/16일(지로는 11/14)까지



### 〈2001년 10월 재정 세부내역〉

-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올해의 인권상' 상금 945만원은 추후 용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잦은 고장으로 속을 썩어오다 마침내 수명을 다한 팩스와 프린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 심태섭 씨가 참가했던 인종차별철폐대회 후속작업(자료제작)에 연대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 사무실에 도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액수가 그리 많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부득이 잠금장치를 새로 교체하느라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 사랑방에서 활동했던 류점열 씨가 부친상을 당해 사랑방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전달했습니다.